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도시재생*

박연정**

박
연
정

I. 들어가며

II.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와 선미촌

III. 선미촌 도시재생의 경과

1. 2014~2016: 민관거버넌스의 경계 허물기
2. 2017~2018: 서노송예술촌 1.0프로젝트 - 인권과 예술
3. 2019~2020: 서노송예술촌 1.0프로젝트 - 예술과 일상

IV. 나가며

I. 들어가며

지난 3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량리588, 성매매 집창촌을 보존하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전면철회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량리역과 인접한 '청량리588'은 서울시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으나 지난

.....
* 이 글은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의 특징에 관한 연구-거버넌스 활동과 '경계 허물기'를 중심으로 (2019)"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조선희 센터장,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센터장,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서노송예술촌 정은영 팀장과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 확인하고 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E-mail: louts21@wku.ac.kr)

201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사라질 계획이다.¹⁾ 지난해 서울시장이 청량리588의 일부를 보존하여 역사생활문화공간 ‘청량리620(2023년 개소 예정)’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이 시작된 것이다. ‘청량리620’은 여행자 마을이라는 주제로 재개발 전의 도시공간 및 일부 건축물을 남겨두어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으로 콘크리트 건물 3채와 목조 건물 11채를 남겼는데 이 중 목조 건물 한 채에 성매매업소가 있었다(조선일보 2019/7/24).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주민들은 성매매 집결지가 성착취,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불법과 인권탄압의 공간이었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계획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선택한 것이었다. 청원은 약 2,300명의 동의를 얻는 것에 그쳐 전국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계획의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 ‘청량리620’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성매매 집결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곳이 바로 전주 ‘선미촌’이다. 선미촌은 전주역(현, 전주시청) 주변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로 1950~1960년대부터 유지되고 있는데, 2014년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직후 현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문화재생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서노송 ‘예술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성매매 집결지 42곳 1,869개 업소가 있었다(연합뉴스 2017/05/01). 국내 성매매 집결지는 개항기에 일본인 집단거류지에 일

1) 동대문구(2005, 3)에 따르면 2003년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의 375,700㎡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계획정비1~4구역(용두, 청량리,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주택재개발), 자율정비1구역(청량리역)으로 청량리역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청량리 588은 이 가운데 청량리구역에 속해 있었으며, 건물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해 2013년 일부만 분리되어 개발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본 공창제가 변형된 '유곽'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홍성철(2007)은 밝힌다. 이후 유곽은 개항지와 철도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1947년 공창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집결지는 묵인되었다.²⁾ 국내에서는 1960~1980년대 경제호황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가 대형화 및 영역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속칭 '유리방'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법 안에서 보호를 받던 성매매는 2001년과 2002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사건으로 '인권'의 문제와 함께 표면에 드러났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알선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 관련 산업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졌고, 집결지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다수의 집결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즉 성매매 집결지는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고 일제강점기 이래 도시의 발달과정 속에서 나타난 곳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주로 원도심에 위치하며 주변 지역의 노후화와 쇠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성매매 집결지는 미개발지로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인천, 대전, 서울 용산, 춘천, 부산 등 주요 성매매 집결지들이 고

2)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관할 보건소의 관리를 받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다(중앙일보 2020/2/22)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묵인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층 건물로 사라졌으며 앞으로도 사라질 예정이다.³⁾ 이와는 달리 선미촌은 재개발이 아닌 문화적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며, 도시의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고립된 섬과 같았던 이 지역은 이제 그 경계를 깨고 마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⁴⁾ 이에 대해 높이 평가를 받아 2015년 ‘지속가능발전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전주 선미촌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노력’과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선미촌 도시재생 과정을 ‘민간거버넌스의 경계 허물기’, ‘서노송예술촌1.0-인권과 예술’, ‘서노송예술촌1.0-예술과 일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와 선미촌

선미촌은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이다. [그림 1]에서 보이는 시청 자리에 1950년대까지는 전주역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전주역 인근에 업소가 생겨나면서 1960년대초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되었다. 역이라는 특수성은 여인숙들이 생겨나는 배경이 되고 이것이 성매매와도 연결되었

3) 인천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송의동은 2005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대다수 업소는 문을 닫았으나, 2020년 현재 일부의 업소만이 이주권 보장문제로 분쟁중이다. 서울 용산역 주변의 성매매 집결지도 2009년 재개발되면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고급 주상복합단지들이 들어섰다.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가 위치한 충무동 일대는 2005년에는 뉴타운재개발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되었고, 2013년부터는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다 지난 2019년에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업소가 사라졌고 남은 성매매 집결지도 폐쇄예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대구 자갈마당은 11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 지난 2019년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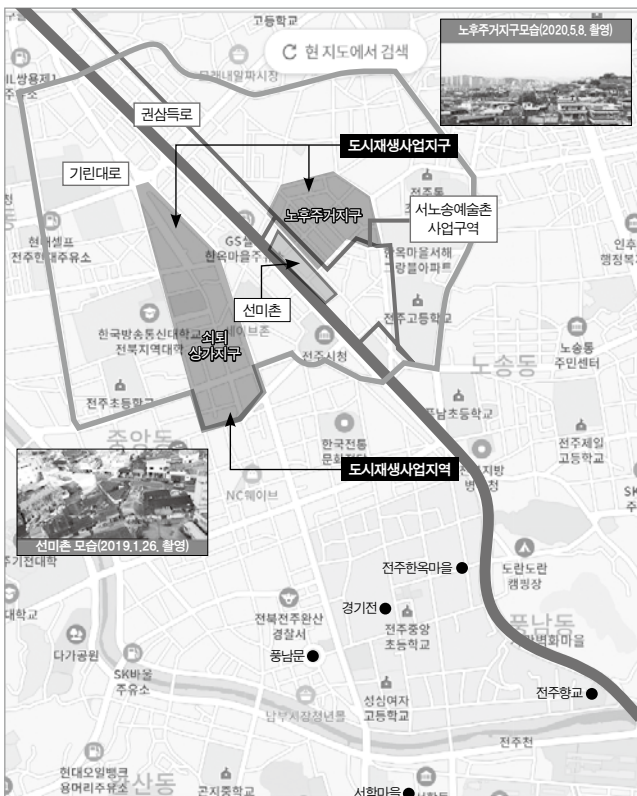
4) 최근 전주시는 서노송예술촌 슬로건으로 관련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시 보고 새로 쓰다”를 채택하였다.

다. 이후 전주역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시청이 들어섰지만, 성매매 집결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선미촌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물은 3층 이하이며, 단층의 한옥 주택들과 업소가 혼재된 채 40~50년을 버티오면서 노후화하고 쇠퇴한 상황이며, 전주시의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고 있다. 전주시는 2001년 군산 개복동 화재, 2002년 군산 대명동 화재 이후 선미촌 정비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부터는 선미촌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를 바탕으로 단속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성매매 집결지는 공고히 운영되었으며, 성매매 집결지를 철거, 폐쇄하겠다는 구체적인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9년이 되면서 전주시는 선미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적인 시설-여성권익단체사무실, 갤러리, 작업실, 자활지원센터 등-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당시 전주시가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던 것과 관계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도시재생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9년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당해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도 선정되면서 도시재생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선미촌은 한옥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기에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2010년에는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팔달로 권역과 남부 도심권에 해당하는 지역 일부가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est Bed)로 선정되면서 도시재생이 가속화되었다.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역은 노송동, 인후1·2동, 중앙동, 진북동 일대로 면적이 1,739 km²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노후주거지구’와 ‘쇠퇴상가지구’ 2개의 사업지역으로 구체화 되었다. ‘노후주거지구’는 노송동, 인후1·2동 지역으

로 약 145,000㎡ 면적에 약 9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의 대표적 노후불량지역이었다(전주시 2014, 154~155). 테스트베드에 선정된 이후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 노후주거지구와 불과 15m 도로(권삼덕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던 선미촌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되었다(그림 1).



[그림 1] 전주 테스트베드 및 선미촌+서노송예술촌의 현황

자료(출처): 전주시(2014, 155)를 바탕으로 네이버 지도에 연구자 재작성

테스트베드 선정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노후주거지구의 재생을 실행할 기회가 생겼지만,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의 존치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이루어낼 수 없었다. 즉 전주시가 선미촌과 인접한 노후주거지(서노송동)의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규정짓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변화가 없던 선미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책들은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할 상황 속에 있었다. 하지만 선미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었고 주거지 재생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어려운 문제였다(그림 2).



[그림 2] 노송노후주거지와 선미촌

자료(설명): 권삼대로를 중심으로 남측에는 선미촌, 북측에는 노후 주거지가 위치. 대로변에는 세탁소, 미용실, 마트 등이 있어 선미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음

자료(출처): 네이버 로드뷰 재구성

그러던 중 2012년 9월에는 서노송동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구 내 주민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있었는데 선미촌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⁵⁾는 ‘선미촌과 여성 인권’을 주제로 5회의 강좌를 진행하게

5)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전북지역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된 단체로 2002년 선미촌을 현장방문하여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1월에는 선미촌 내 현장상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선미촌 자활지원사업(2005)’, ‘선미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2007)’, ‘전주시 의견 제안(2008)’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2010년에는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열린터 쉼’을 선미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선미촌 내 여성 인권뿐 아니라 성매

되었다. ‘성매매와 여성 인권, 성구매남성문화, 성매매방지정책, 집결지의 현황과 대책, 선미촌 이야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서노송동 주민들의 선미촌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개인적 불쾌함 등을 이유로 참석률이 높지는 못하였지만, 선미촌을 마을의 문제로 공론화하였음에 의미를 둘 수 있었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16, 33-34).

본 행사를 계기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선미촌으로 인해 고통 받은 마을 주민의 주거복지 및 인권에도 관심을 더하게 되면서 선미촌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13년 말 ‘전주의제21⁶⁾이 선미촌을 의제로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제안하면서 준비모임을 가졌으며, 2014년 2월 발족한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구성원⁷⁾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즉 성매매 집결지에 접한 노후주거지의 도시재생이 본격화되면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선미촌의 도시재생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III. 선미촌 도시재생의 경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는 구성 당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주시장 후보들에게 선미촌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공개하여 선미촌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선미촌 문제를 거버넌스와 협력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후보가 당선되면

매 집결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6) 전주의제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2월에 창립된 민관협력기구로 현재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 7)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참여위원은 서노송주민, 도시계획전문가, 언론사, 경찰, 시의원, 선미촌 인근 고등학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의제21 등 30여 명이였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전주의제21이 공동사무국을 맡고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는 선미촌 도시재생의 주요한 주체가 되었다.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집담회, 워크숍, 소위원회, 연수 및 견학 등이 행해졌고, 그 결과들은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요한 방향 수립의 배경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전주시는 선미촌을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발표를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67억 원이 투입되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선미촌은 2002년에 85개 업소(250명 종사)이던 것이 2019년 말에는 17개 업소(25명 종사)로 축소되었다(노컷뉴스 2020/1/6).⁸⁾ 또한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문화적 재생을 위해 일부의 건물은 전주시가 매입하여 인권 및 예술 관련 프로그램들로 기능을 전환하고 있으며, 가로정비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민들의 예술참여가 더해지면서 성매매집결지는 이제 문화촌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이 서노송예술촌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양상을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발족한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도시재생사업 진행양상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 지난 5월 8일에 면담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 서노송예술촌 정은영 팀장은 2016년 서노송예술촌사업이 본격화될 당시에는 49개 업소 88명의 여성이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15개소 업소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는 일부라고 하였다.

[표 1] 선미촌 도시재생 주요 사업(2020년 5월 기준)



구분	매입 1호	시유지	매입 2호	매입 3호
대지위치	물왕열2길 5-4	기린대로 224	물왕열2길 3-6, 9-7	기린대로 200-5
대지면적	304㎡	190㎡	324㎡	602㎡
기존용도	창고 및 폐·공가	시유지	공가	성매매업소
신규용도	시티가든 기억의 공간	시티가든 인권의 공간	복합문화공간 건립예정	업사이클센터
구분	매입 4호	매입 5호	매입 6호	
대지위치	물왕열2길 9-6	물왕열3길 7	관심도로 43	
대지면적	89㎡	158㎡	확인불가	
기존용도	단독주택	성매매업소	성매매업소	
신규용도	서점	성평등센터 +선미촌아카이브	현장시청 +마을박물관	

자료(출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1. 2014~2016: 민관거버넌스의 경계 허물기

선미촌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활동들은 선미촌 도시재생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기존 노후 주거지와 선미촌을 함께 재생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큰 축을 이루어, ‘탈성매매’를 위한 노력이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담기면서 경계 허물기

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성매매 집결지는 도시 내 '경계(지어진)공간'이었다.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회와는 다르다고, 나아가 그들의 통념적인 범위의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사회적 경계'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는 도시 내 길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또는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없는 '공간적 경계'가 있다. 문, 담이나 벽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입구에서의 호객행위는 물리적 형태의 경계보다 더욱 강한 경계를 형성해 왔다. 또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인식적 경계'가 존재한다. 이 시기의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의의 주요 활동들은 보이지 않던 경계를 허물면서 도시재생의 바탕이 되었다.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의는 구성 직후인 2014년 3월 '선미촌 정비를 위한 상상 워크숍'을 1,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주시 선미촌 기능전환 다올마당⁹⁾이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었고 5월에는 1차 집담회도 열어 '집결지 지역의 재구성'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정책팀 워크숍(1차)을 통해 '여성 인권·자활 공간조성에 대한 제안', '선미촌 상상하기-협동조합&레지던스형 창작공간', '전통생활문화연계 슬로우라이프 문화공간'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8월에 진행된 정책팀 워크숍(2차)은 '선미촌 지역의 재구성-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공간-'이 주제였다. 이후 전주시는 기존의 노후 주거지 재생지구에서 배제되어 있던 선미촌을 포함하여 예술촌을 구성하기 위하여 서노송예술촌 TF팀을 구성하였으며 11월에는 선미촌 내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선미촌 내 일부

9) 다올마당은 민선 6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의 총칭으로 '다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한다.

건물을 거점 공간으로 매입하였다(국민일보 2015/11/4).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와 함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002년부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선미촌 업소 여성의 상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선미촌경험여성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16, 33).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선미촌 걷기’라는 활동의 주체가 되었는데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선미촌을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은 ‘성매매 집결지와 선미촌의 현상과 문제설명, 선미촌 걷기, 이야기 나누기’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자발성, 불법성, 비윤리성-에 근거한 비난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취약이나, 자발성 이후에 행해지는 억압과 비자발성의 반복을 통한 삶의 고착화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이 설명되었다. 두 번째 과정은 업소가 문을 열기 전 시간에 조용한 선미촌을 걷는 것으로 그동안은 보지 못한, 볼 수 없었던 경계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은 앞선 두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문제와 해결 방향 등을 소통할 수 있었다. 특히 걷기 과정이나 대화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출하게 되는 경우 주체자들은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한 발언도 이루어졌다.¹⁰⁾ ‘선미촌 걷기’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였다. 즉 ‘선미촌 걷기’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고민과 경험은 선미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외부 사람들(걷기 참가자)에게 성매매 집결지라는 공간뿐

10)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선미촌걷기활동’의 과정들을 책자화 한 것이 『2015, 2016, 2017 선미촌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참가자와 진행자의 발언이 정리되어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미촌걷기활동’이 도시재생이 가능했던 ‘경계 허물기’로 분석한 논문이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의 특징에 관한 연구-거버넌스 활동과 ‘경계 허물기’를 중심으로(2019)」이다.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집담회는 지속적으로 열렸는데, 2016년 6월에는 '인권의 거리로'라는 주제로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이 '폐·공간 활용에 대해'를 발제하였고 청년기획자, 건축가, 사진작가가 토론하며 의견이 교환되었다. 8월에는 이러한 내용이 '정주형 예술창작촌조성', '인권과 예술의 거리조성'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연합뉴스 2016/8/9; 2016/8/26).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30억이 추가지원 되었고 선미촌도시재생사업은 탄력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전주시는 선미촌 내 폐·공간 및 성매매업소도 매입하였다. 이 시기에는 예술 관련 활동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6년 10월 <선미촌의 재구성: 아주 오래된 의자>라는 전시회가 전주영화제작소에서 개최되었다.

2. 2017~2018: 서노송예술촌1.0프로젝트¹¹⁾ - 인권과 예술

앞선 시기가 선미촌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방향 수립을 위한 과정이자 선미촌에 대한 경계를 없애는 과정이었다면 해당 시기는 이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시기였다. 우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¹²⁾ 되었으며, '인권'을 주제로 한 선미촌 내 일부 공간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예술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11) 전주시장은 2020년부터 진행될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에 2.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2017년~2019년의 프로젝트를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1.0'로 표현하였다.

12)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주변 현황조사, 지역주민 협의 및 설명회 개최, 여행길 및 골목경관정비, 주차장 및 커뮤니티공간 주변환경정비, 보행공간 확보방안 및 보행자 편의시설 설계, 공개공지 경관설계, 행복주택사업 부지 선정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시설결정, 아트팩토리, 아트레지던시 등 문화예술복합공간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을 포함하였다(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중).

이루어졌다. 특히 성매매업소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근거가 되는 ‘전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2017년 4월 제정되면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실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3] 선미촌 매입 1호와 시유지의 변화

자료(설명): 시티가든-인권의 공간(좌), 시티가든-기억의 공간(우)

자료(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

선미촌 내 공간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2017년 5월에 공개된 2개의 시티가든이다. 하나는 기린대로변 농협 앞 시유지에 있던 가건물을 철거하고 조성하여 ‘인권의 공간’으로 이름을 붙인 공원이다. 선미촌 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성매매여성의 인터뷰 일부 문구를 동상으로 제작하여 그들의 ‘인권’을 알리고자 하였고, 속칭 유리방 내 상징적 물품인 ‘의자’에 주목하였던 것을 통하여 상징적 장소임을 알리도록 의자를 배치하였다. 다른 하나는 선미촌 한가운데 위치한 폐·공가를 1호로 매입하여 ‘기억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공원이다. 이 공원에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아픈 과거를 알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업소 건물의 일부를 남겨두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곳에서 마을 잔치가 2017년 5월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후에도 마을의 주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시기부터 시가 매입한 곳은 총 6개소였는데 1호만 이 시기에 공원으로 변모되었으며, 다른 매입건물들은 다음 시기에 기능전환이 이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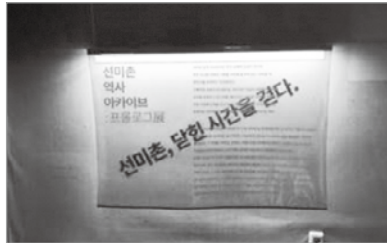
① 2017.5.24.~2017.12.



② 2017.9.21.~2017.9.29.



③ 2018.9.13.~2018.9.21.



④ 2018.11.29.~2018.12.1.

[그림 4] 선미촌에서 이루어진 인권-예술활동

자료(설명): ① 안녕, 선미: 4인의 예술가들이 100일 동안 선미촌을 관찰하고 작업(글, 설치미술, 음악)하고 결과를 공유
 ② 선미촌 리본(re-born)프로젝트: 여성인권침해의 공간에서 여성인권상징의 공간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구성
 ③ 선미촌 리본(re-born)프로젝트 II: 여성인권비엔날레 '여성인권, 기억, 공간재현'을 주제로 다 양한 예술작품전시
 ④ 선미촌역사아카이브; 프롤로그전: '선미촌, 닫힌 시간을 걷다'를 주제로 선미촌의 변천사 전시
 자료(출처): ① 네이버 블로그 '두깨바' ② 여성신문 2017/0/21 ③ 문화저널 2018/10 ④ 연구자 직접촬영

기 전까지 문화예술 및 현장시청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¹³⁾ 주요하게 진행된 예술 관련 행사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선미촌 리본(re-born) 프로젝트〉, 다음 해인 2018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에 열린 〈선미촌 리본(re-born) 프로젝트 II〉 및 〈선미촌역사아카이브; 프롤로그전〉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반성매매를 전제에 두고 여성 인권에

13) 3호점은 업사이클센터(2020년 6월 개소 예정)를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되기 전까지 현장시청으로 사용되었으며(현장시청은 현재 6호점에서 운영되고 있음) 2호점은 복합문화공간(현재 공사중)으로, 4호점은 서점(2018년 12월 개소), 5호점은 성평등센터(2019년 12월 개소)로 기능이 전환되었거나 전환 중이다.

대한 예술가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4). 이렇게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8년 8월 전주시는 서노송예술촌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협의부서 9개 과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다.

3. 2019~2020: 서노송예술촌1.0프로젝트 - 예술과 일상

이번 시기의 포문을 연 것은 ‘물결서사(書肆)’ 서점이었다. 전주시가 매입한 4호점으로 1호의 공원과 접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 12월 말에 문을 열었는데 2017년 선미촌에서 열린 인권전시 <선미촌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함께 작업했던 청년예술가 7명이 결성한 ‘Artist Lab 물왕멸’이 서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예술 서적의 판매뿐 아니라 주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인창작 활동을 지속하여 주민들과 공유해 오고 있다. 물왕멸의 참여는 선미촌 도시재생이 새로운 방향을 가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시기가 인권의 예술화를 통한 반성매매 지향 및 선미촌 내 공간의



【그림 5】성매매업소의 기능전환

자료(설명): 2층 건물로 1층은 성매매업소, 2층은 업주 및 성매매여성들이 거주하였다. 전주시가 이를 매입하여 소통 협력공간으로 사용하다 리모델링 후 지난 12월 성평등센터가 입소하였다. 여성들을 전 시하던 유리창은 이제 소통을 위한 창과 공간으로 변모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

자료(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좌), 전주시청 공식블로그(우)

기능전환을 통해 서노송예술촌의 가능성 등을 확인한 시기였다면 이번 시기는 사실상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주시는 지난 시기부터 이어졌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성평등 플랫폼·여성인권복합공간, 여성인권·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혁신기지 조성, 업사이클센터 조성 등을 완료하고 특히 일상적 공간의 물리적 정비·여행길 조성, 커뮤니티 공간조성,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확충, 하수관로정비, 소로개설 등의 실행 및 공동체 활성화 활동 지원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6] 선미촌 예상 변화 모습

자료(설명): 전주시 매입 2호 문화예술센터 건립 예상 조감도(좌),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 예상 조감도(우)

자료(출처): 세계일보 2018/1/3

그러던 중 2019년 6월 문화부 주최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서노송예술촌의 ‘사람이 묻고 꽃이 답하다’가 선정되면서 기존 사업에 새로운 내용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은 ‘인디’라는 이름을 붙이고 물결서사, 책방놀지, (재)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체로 참여하면서 총괄기획은 물왕멀팀의 장근범 작가가 맡았다(전북투데이 2019/6/14). 선미촌의 지난 시기들의 재생 활동들이 ‘인권·반성매매’에 집중된 것에서 나아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사람이 묻고 꽃이 답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문, 가드닝, 창업, 예술, 마켓’ 5개의 부문에서 ‘배우고’, ‘키우고’, ‘만들고’, ‘나누다’를 실행

코자 하였다. 마을 곳곳에서 가꾸어지던 텃밭과 노년층이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가드닝을 바탕으로 인문, 창업, 예술, 마켓이 서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이 과정에서 ‘인문, 가드닝, 창업, 예술, 마켓’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전문가 2인+주민 2인+예술가 1인으로 구성하면서 마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다양한 활동-야시장, 마을 축제, 작품발표 및 전시-들은 ‘길’에서 이루어졌다. 선미촌 내의 길과 주거지를 연결하여 서노송예술촌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내고, 선미촌으로 인해 야간 보행시 무서울 수 있었던 길을 밝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

[표 2]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내용
배우다 Lea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가드닝 교육 • 개인 및 공유 예술 정원 조성 : 1인 예술가와 1개의 주민 텃밭을 연계하여 예술정원 조성 및 마을공동 공유정원 (공터, 골목길, 마을입구, 인도 등) 조성
키우다 Gr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숲(마을상징공간, 공동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골목길 가드닝 네트워크구축 • 문화장인 공동체 육성
만들다 Ma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디페스티벌 : 예술가와 주민의 결합과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위한 사회참여 예술제 개최 • 마을이야기 발굴 및 기록화 • 마을창극단 : 주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마을문화 회복
나누다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이주/스타트업 및 업종 전환 : 인문예술단체 및 개인의 선미촌 이주 유도, 문화스타트업유치 • 분기별 시민장터 ‘인디장’

자료(출처): 전북투데이 2019/6/14



[그림 7] 문화적 도시재생 주요 활동

자료(출처): 웹진문화관광 2019/11

이프스타일인원주, 장근범작가 발제). 또한, 사업 진행 중에 전주시 자원 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을 넘어선 지역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이 시기는 기존 도시재생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것에 그칠 수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일상공간의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주민, 문화예술가 및 전문가와 구체화 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

IV. 나가며

선미촌 도시재생은 2014년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업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오고 있다. 주요 성과는 앞의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고는 타자적 입장에서 선미촌 도시재생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부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진행형의 사업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기에 선불리 그 결과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행된 선미촌의 도시재생-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기능을 전환하는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집결지의 재개발과는 그 양상이 분명히 다르고, 자발적 기능전환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8월에는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섰으며(전북도민일보 2018/8/12), 3호점 옆에 위치하였던 단층건물의 성매매업소는 2층 상가로 재건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 성매매업소의 폐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구성된 2014년부터 약 7년간 진행되어온 선미촌의

도시재생은 그동안 공고히 닫혀있던 성매매 집결지를 폭력적이고 물리적 권력 행사 없이 폐쇄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여성들의 자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의 도시재생이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문화예술’, ‘인권’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외부인들의 개입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행되었기에 사업 단계별 다양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1단계인 ‘경계허물기’에서는 업소 관련 사람들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¹⁴⁾와의 갈등이 있었으며, 2단계 ‘서노송예술촌 1.0-인권과 예술’에서는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일부의 작가들이 ‘성매매 업소 및 집결지, 종사자’를 대상화 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게 되면서 기존 사업 주체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과 일부의 갈등 양상이 있었다고 한다. 3단계 ‘서노송예술촌 1.0-예술과 일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 예술가와 주민의 협업이 중요하였는데, 시작단계에서는 이미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한 바가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이프스타일인원주). 하지만 마을 주민, 업소여성, 업주, 예술가, 인권운동가, 각 부처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하여 소통(집담회, 소모임 등)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¹⁵⁾

도시재생은 노후·쇠퇴한 공간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중심을 두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예술가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도시재생 참여 등이 바탕을 이루어 좋은 성과를 거두

14) 해당 내용은 조선희 전주시성평등센터장,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의 면담과 라이프스타일인원주에 업로드되어 있는 물왕벌의 장근범 작가의 발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15) 물론 사업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사변동은 원활한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단시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도 있다.

고 있고, 업소의 완전 폐쇄를 목표로 삼는 서노송예술촌2.0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동대문구. 2005.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16. 『선미촌 다시, 봄』.
- 전주시 도시재생과. 2017.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전주시. 2014. 『전주, 도시재생을 말하다』.
-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 “[기획: 다시 그리는 선미촌] 모순과 부조화의 공간에서 기억과 성찰의 시간을 갖다.” 문화저널. 2018.10.31. http://munhwajl.com/?doc=article/article02_view.php&category=6&art2_id=10554(검색일 2020년 5월 1일)
- “[성매매 실태조사] 집결지 42곳·업소 1천869곳...3년 전보다 증가.” 연합뉴스 2017.5.1. <https://www.yna.co.kr/view/AKR20170430047100005>(검색일: 2020년 5월 1일)
- “20171210 안녕선미 아티스트 토크.” 개인 블로그. 2017.12.15. <https://blog.naver.com/jiin0603/221163853489>(검색일: 2020년 5월 15일)
- “마스크도 못 쓰고 손 소독제만...성매매 집결지, 코로나 공포.” 중앙일보. 2020.2.22.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759>(검색일: 2020년 5월 15일)
- “여성인권과 문화예술로 재탄생 하는 전주 선미촌.” 여성신문. 201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310&aid=0000061766>(검색일 2019년 1월 13일)
- “인권과 문화예술로 다시 태어난 성평등 전주.” 전주시공식블로그. 2020.3.4. http://blog.naver.com/jeonju_city/221835683870(검색일: 2020년 5월 1일)
- “전주 ‘선미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본격화...강제철거 대신 자진폐쇄 유도.” 국민일보. 2015.1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06993&code=11131424&cp=nv>(검색일: 2019년 1월 10일)
-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 프로그램 발표.” 전북투데이. 2019.6.14. <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검색일 2020년

5월 15일)

“전주 선미촌 업종전환 1호점 냉면집 문열어.” 전북도민일보. 2018.8.12.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626>(검색일: 2019년 1월 10일)

“전주 성매매 지역 ‘선미촌’ 정주형 예술창작촌으로 거듭난다.” 연합뉴스. 2016.8.9. <https://www.yna.co.kr/view/AKR20160809114300055>(검색일: 2019년 1월 10일)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폐쇄 나서.” 노컷뉴스. 2020.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68645>(검색일: 2020년 5월 10일)

“전주시 선미촌, 인권과 예술의 거리로 조성된다.” 아시아경제. 2016.8.26. <http://cm.asiae.co.kr/article/2016082612480918740>(검색일: 2019년 1월 10일)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에 박차.” 세계일보. 2018.1.13.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03002975?OutUrl=naver>(검색일: 2019년 1월 10일)

“지역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문화적 도시재생.” 웹진문화관광. 2019.11.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103&menu_seq=3&board_seq=1#(검색일 2020년 5월 1일)

“청량리 588 사라진 자리… ‘문화공간’ 청량리 620이 채운다.” 조선일보. 2019.7.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201.html(검색일: 2020년 5월 1일)

“청량리 588, 성매매 집창촌을 보존하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2020.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68>(검색일: 2020년 5월 15일)

“평화의 행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http://www.yonggamhan.org/sub01/sub02.php>(검색일: 2019년 1월 10일)

라이프스타일인원주[장근범작가 발제](<https://www.youtube.com/watch?v=XSzrdeksEss>)

전주시(<http://www.jeonju.go.kr>)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https://blog.naver.com/jjcsd21>)